

코로나 버텨내는 당신께 드리는 노래

최고은, 8~10일 온라인 공연
고상지·김사월 등 7팀 초청
손 간판 작업 박태규 작가 협업

‘오늘도 버텨내고 존재하는 당신께 드리는 노래’

지난 2019년부터 주변 예술인을 광주로 초대해 ‘광주스러움’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수 최고은이 세번째 공연으로 광주 시민과 만난다.

‘커밍홈(Coming Home) vol.3 - 버텨내고 존재하기’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오후 8시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지난 가을 광주극장에서 사전에 촬영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으며 공연 포스터는 극장에서 ‘손 간판’ 작업을 하고 있는 박태규 작가와 협업으로 제작해 눈길을 끈다.

최 씨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매년 음악공연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커밍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커밍홈 프로젝트’ 첫회 공연은 2019년 7월 카페 쿠퍼갤러리에서 열렸으며, ‘고향’이라는 컨셉으로 공연과 전시(‘정추 선생의 생애와 음악세계’)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장작소에서 ‘친구’를 주제로 선우정아, 오조, 김소연 시인, 이제니 시인 등과 친구에 대한 노래와 시를 들려줬으며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이번 세번째 프로젝트는 모데스트몬스터가 주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며 주제는 ‘버텨내고 존재하기’다. 최 씨는 2020년 코로나 19 확산 이후 낯선 일상과 어색한 활동의 풍경 속에서 주변과 관계맺음, 나라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음악가로서 버텨내고 존재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를 어쿠스틱한



‘커밍홈 vol.3 - 버텨내고 존재하기’가 8~10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사진은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최고은

사운드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음악세계를 만들어가는 음악가들과 함께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는 고상지, 아마도이저람밴드, 김사월 등 트렌디한 음악을 쫓지 않고 자신이 창조한 음악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최 씨의 음악 친구들 7팀이 함께한다.

첫 공연인 8일에는 고상지와 이자원이 ‘SANGJI’를,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은 ‘고독사’를 들려준다. 또 최고은 밴드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9일 무대에서는 김일두의 ‘복순씨’, 정우의 ‘양’을 비롯해 아마도이저람밴드의 곡을 들을 수 있다.

마지막 공연날인 10일에는 팍푸른하늘과 김사월이 ‘워너비’, ‘너만큼’ 등을 들려주며 최고은도 솔로로 무대에 오른다.

한편, 이번 공연에 참여한 뮤지션 7팀은 지난 10월 광주극장에서 사전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박태규 작가는 9월 중순 포스터 작업을 시작해 ‘버텨내고 존재하기’에 의미를 더했다. 사전촬영 영상과 포스터 작업 진행 과정은 ‘제비다방’(서울)에서 진행될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 공연과 엮어 관객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공연은 ‘제비온에어’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온라인 공연 관람권과 예매는 텀블벅 사이트에서 후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엽서, 한정판 CD 등이 포함된 굿즈꾸러미도 함께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10-4111-0275. /전은재 기자 ej6621@

베토벤,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김자람 독주회
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2부에서는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한다. 프랑크가 이자이의 결혼 선물로 만든 이 작품은 피아노의 풍부한 사운드와 바이올린의 강력한 음색이 매력적인 4악장이 가장 유명하다. 한편 박순애와 이정아를 사사한 김자람은 6세에

광주남도예술회관 무대에 섰다.

이후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10세에 서울첼비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로 공식 데뷔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및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중이다. 문의 010-6331-68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아벨 콰르텟 등 현악사중주단 초청 공연

광주문예회관, 6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현악사중주 시리즈’가 지난 30일 에스메 콰르텟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오는 3일 열리는 두번째 공연에서는 아벨 콰르텟이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제7번 5도’, 베토벤 ‘현악 사중주 제4번’과 ‘현악 사중주 제15번’을 들려준다.

4일 무대에 오르는 아더 첼로 콰르텟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시작으로 바흐 ‘영국 모음곡 3번’, 드뷔시 ‘아마빛 머리의 소녀’, 포퍼 ‘콘서트를 위한 폴로네이즈 D단조’ 등 다양한 곡을 들려주며 리수스 콰르텟은 5일 하이든 ‘현악사중주 4번 일출’, 바르토크 ‘현악사중주 3번’,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6번’ 등을 연주한다.

이번 시리즈 대미는 아레테 콰르텟(6일)이 장식하며 레퍼토리는 하이든 ‘현악사중주 제2번’, 베토벤 ‘현악사중주 5-11번’이다.

티켓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이며 공연 관람 후 다음공연 티켓을 현장에서 예매하면



아벨 콰르텟

20% 할인된다. 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기계적인 운율서 벗어난 ‘시조의 현대성’

광주 출신 이송희 시인 평론집 ‘거울과 응시’ 펴내

미디어 네트워크 문화가 강력한 자장을 형성하는 시대, 현대시조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모든 시는 현재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정의에 따르면 시조 또한 ‘지금 여기’의 삶을 정형이라는 양식에 담아낸다.

광주 출신 이송희 시조시인이 평론집 ‘거울과 응시’(세미·시진)를 펴냈다.

시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 물음에서 시작되는 자화상이 화가로 하여금 붓을 들게 한 것처럼, 글쓰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 책은 기존의 시조문법을 구사한 시조부터 형식과 내용의 변형을 시도한 시조에 이르기까지 두루 담어낸다.

“작가는 세상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여준다.

이를 통해 미처 의식하지 못해 놓쳐왔던 ‘세상의 이면’을 드러내, 조화롭고 온전한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들의 글쓰기는 단순한 발설이 아니라 분리되고 분열된 것을 통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저자는 또한 시조에 대한 고정 문법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시조의 현대성’을 경험하게 하는 데 이번 책의 주안점을 뒀다. 다시 말해 기계적인 운율에서 벗어난 현대시조의 율격을 경험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를 매개로 시조는 어디까지 왔고 또한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하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작가론에서는 현대시조의 서정세계를 다채롭게 펼친 중견과 시인들의 작품이 등장한다. 박정호, 임태진, 노창



수, 전원범, 신필영, 김강호, 정혜숙 시인의 작품에 초점을 맞췄다.

2부와 3부는 현대사회의 아픔과 불안에 대한 비망록, 자본주의적 삶의 욕망 등을 나무의 방식으로 사유한다. 경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 상상과 공존을 통해 안과 밖을 향한 열린 사유를 저항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전남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200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조로 등단했으며 고산문학대상, 가람시조문학상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아포리아 숲’, ‘환절기의 변화’ 등의 시집과 평론집 ‘경계의 시학’, 연구서 ‘현대시와 인지시학’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남 대흥사서 6일 서산대제 표충사 추계 제향

탄신 501주년 기념 세미나도

조계종 제22교구인 해남 대흥사는 탄신 제501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표충사 추계 제향 및 학술세미나를 오는 6일 개최한다.

먼저 표충사 추계제향 봉행은 오전 9시 30분 표충사에서 진행된다. 향례 순서는 집사 임취, 초헌관 점시, 제집사 입취, 관세, 세작,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철변두, 망료례, 집사

등 퇴장, 예필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호국의승 추모제는 오전 10시 30분 청산스님을 범주로 표충사에서 개최된다.

마지막으로 서산대사 탄신 501주년 기념 세미나는 오후 1시부터 ‘서산대사, 그 위대한 호국 호법의 자취’를 주제로 대흥사 보현전에서 열리며 모두 5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문의 061-534-550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